

7세기 말~8세기 초 신라에 유학했던 일본인 승려가필사해 간 것으로 알려진 원효 스님의 저술 <관비량론(觀量論)>이 신라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동아시아 각 필 연구자인 고바야시 요시노리 일본 도쿠시마 대학 교수는 2일 <관비량론>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오타니 대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비량론> 필사본에서 신라시대 언어와 한자 발음이 적혀 있는 각 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교수에 따르면, <관비량론>에서는 특히 한자 발음을 읽기 위한 ‘문장 부호’처럼 생긴 각 필이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발견되는 각 필 문장 부호와는 전혀 다른 모양일 뿐 아니라 한자 발음 역시 한국어로 읽힌다. “일본인이 베끼기 했더라면 신라식 각 필까지 베껴 리가 없기 때문에 신라인이 필사한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 발견된 <관비량론> 필사본. 일본인이 신라에서 베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라인이 필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또 각 필에는 일본의 가타카나 문자와 비슷한 모양의 독음이 달려 있어, 한자를 읽는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타카나의 원형이 한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고바야시 교수는 덧붙였다.

현재 일본의 중요문화재보물급으로 지정돼 있는 <관비량론>은 원효 스님이 671년 고대 인도의 논리학인 인명(因明)의 형식을 빌려 유식(唯識)학을 설명한 저술로, 두루마리 형태로 일부 내용이 전한다. 일본 학계에선 가타카나 문자가 서기 800년쯤 한자의 일부를 줄여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앞선 740년 일본 황후에게 바쳐진 <관비량론>에서 가타카나와 비슷한 조어 방식을 가진 신라인의 각 필이

“日보물 원효 ‘관비량론’ 最古 신라인 필사본”

고바야시 교수 ‘日人 필사’ 주장 뒤집어

발견했다는 것은 가타카나 한반도 유래설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에 대해 은정희(서울고대) 교수는 “7~8세기 경 원효 스님 저술만 50여 권 필사를 해 간 당시 상황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장은 “고바야시 교수는 일본 고문서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일본에서도 특 A급 학자로, 각 필로 새긴 흔적이 일본의 독자 발명이라고

한자 발음 ‘각필’ 신라시대 언어 가타카나 문자 한반도 원형설 증거

을 볼 때 신라인이 베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신라인이 썼든 일본인이 썼든 일본에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장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그동안 입장에서 급선회하여 재차 “우리의 나라 고대 조조대장 등에서 발견된 구결(口訣)문에서 사용하는

학술담당 = 권형진 기자 jny@buddhapa.com

우리말 토씨(土字) 일본 가나의 원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며 “문화사적으로 한국 문화의 일본 전래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면서 최고(最古)의 필사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각 필이란

각 필은 상아나 대나무의 한쪽 끝을 표촉하게 만든 것(각) 모양의 필기(筆)로, 옛날 사람들은 한문 서적을 읽을 때 한자 옆에 발음이나 해석을 알려주기 위해 각 필 끝을 눌러 패게 해 문자나 부호를 표시했다. 늘려 쓴 것만 있을 뿐 색깔이 드러나지 않아 고문헌 연구자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40여 년 전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일본에선 원문 한자 옆에 각 필로 새겨져 한자 발음이 나 번외 순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훈점(訓點) 오키노 집이 일본의 독자 발명이며 이것이 점차 가타카나 문자로 발전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눌, 원시불교 정신 유지 깊고 폭넓은 사유체계”

이덕진 교수 ‘지눌의 마음철학’ 발표



모든 개체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연속 속에서만 자아(自我)라는 개념이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마음 역시 절대적 그 무엇이 아니라 존재자의 경험적 속성일 뿐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후대로 내려오며 특히 중국 선불교의 경우 종종 ‘마음이 곧 부처’라는 설에서 보듯 마음이 원이상학적 실체로 해석되면서 절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개별적인 자아 속에 불성으로써의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은 붓다가 빠져 나오려고 한 실재론적인 형이상학론에 빠져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

수덕사 부설 한국선학연구원(원 이사장 법장)이 13일 개최하는 제4차 덕숭선학 학술회의에서 지눌의 마음 철학 연구’를 발표하는 이덕진(고려대 강사·사건)씨는 미리 공개한 주제발표문에서 “지눌이 마음에 대해 언급할 때 마음이 가지고 있는 주제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에 대해 실재론적 입장에서 절대자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눌의 사상 전체를 일관하는 흐름은 반실재론적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따르면 지눌의 초기 저작인 <수심결(修心訣)>이나 <진심직설(眞心直說)>에서는 영원불변하는 주제로서의 자아를 인정하는 듯한 실재론적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말년 저작인 <절요(絶要)> 등에서는 초기의 실재론적 경향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의 저작에서 붓다가 빠져나오기를 지극한 실재론적 사유가 보이는 것은 지눌이 자성을 인간 일반 모두에게 무시(無始) 이래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눌은 자성의 사원(始原)을 탐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실재론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지눌은 중국불교에 침투한 실재론적 사고에 대한 극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도 불성으로서의 자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원시불교보다 중국 선불교와 그 특징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붓다의 원시불교 정신을 배반하지 않는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교적 사유체계를 더 넓고 깊게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의 제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김태환 부산대 강사, 송인성 고려대 교수, 차차차 동국대 강사, 김호기 동국대 강사, 박영록 총주대 교수, 김용표 동국대 교수, 최훈중 서울의대 외래교수, 이동한 총북대 교수, 고영섭 동국대 강사 등 모두 11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고려 광종때 안성봉업사 개혁 중심지



△안성 봉업사지 중 고려 태조 왕건의 진영을 봉안한 진전이 있던 장소로 추정되는 건물터(사진 위). 봉업사지에서는 단일 유적으로 가장 많은 454점의 명문기와가 출토됐다(사진 아래).

광종대의 독자적인 연호인 ‘준봉(峻豐)’ ‘건덕(乾德)’ 등이 새겨진 명문기와 40여 종 500여 점, 청자, 중국 자기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문자가 새겨진 명문기와 454점은 우리 나라에서 단일 유적으로는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이며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고려 태조의 진영을 모신 진전의 위치를 시역의 중심인 오층석탑 북서쪽에서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박물관은 이를 토대로 봉업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화차사(華次寺)로 개칭됐다 고려시대 들어 봉업사로 중흥했으며, 고려 제국의 기반을 다진 광종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중심지라고 결론 내렸다.



왕권 강화·중앙 집권화 위해 크게 중건 두차례 발굴... 명문기와 454점 출토 왕건 진영 모신 ‘진전’ 위치도 밝혀져

경기도 안성 봉업사는 광종이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화를 통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중건한, 경기 지역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주유 호족들을 왕권 아래 규합하기 시작하면서 중심지인 석탑에서 반경 500m 규모의, 대규모 절(봉업사)로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전사원의 면모를 갖는 것도 이 시기”라고 말했다.

해남 미항사

조선후기 대표적 전법 도량



△미항사 서부도전에 봉안된 설봉당탑(사진 위)과 탑신 문양 탁본(사진 오른쪽).

미항사는 정유재란 이후 17세기 후반의 제2중창에서 1754년 3차 중창에 이르는 100여 년 동안 벽하, 설봉, 연담, 남암 등 무려 9개의 고승이 주석했을 정도로 번창했다.

이번 보고서는 조선시대 부도 연구 성과가 미진한 가운데 18~19세기 부도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데도 의의가 크다. 미항사 남·서 부도전



부도群 조사 스님 28분 행장 밝혀내 벽하·설봉·연담 대사 등 고승들 주석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각은)은 최근 발간한 <미항사 부도군 실측조사 보고서>에서 미항사에서 활동한 스님들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 28기와 이들의 행적을 기록한 탐비 5기, 사적비 1기의 실측도면 분석을 통해 미항사에서 활동한 조선시대 스님 28분의 행적을 밝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 남아 있는 27기의 부도 중 12기가 확실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 시기 다른 부도의 연대 추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양 역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토속적인 문양을 새겨 넣은 부도가 많아 민간신앙으로 발전하면서 대중화한 조선 후기 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신간! 아버지의 세월 1, 2, 3

세상의 총각들이여!

당신은 10년의 긴 세월동안 교제해온 애인이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했다면 그 여자의 피치못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시 포근한 사람으로 감추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당신은 아들의 애인이 직장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그를 죽인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간 며느리 감을 위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고 다시 그녀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이며 출옥후 섣달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은 에로스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고급명령이 합일된 시작이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섹시함으로 시작된 에로스적 사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녀들은 법원 앞에 살아야 이혼 소송이 간편해집니다.

이 책을 구상한 것은

1994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원고지 몇만 장의 분량이 죽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셈이다. 요즘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점과 슈퍼에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먹거리가 부지기수로 널브러져 있다. 그 고도 성장의 한 모퉁이에서 새삼스럽게 50년 전의 퇴색된 역사를 끄집어 내어 분해하는 작업으로 글쓰는 것을 수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아직도 논밭에 심은 벼포기를 이르러 ‘쌀나무’라고 칭하는 젊음이 있다면 아니, 배고픈 시대를 돌이켜 질약 정신을 일깨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하고 간단하게 반문할 수 있는 영동한 청년이 존재한다면 그 마음편한 청년들을 위해서 역사 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사명감이 깊이 자리잡아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저자의 말 중에서

Tel 02) 713-6363, 2237-1641
Fax 02)713-6362

백양출판사

이진하 장편소설

아버지의 세월 1.2.3

298~304쪽/각권 8,000원

·저자 이진하 스님과의 대화
선문사 TEL 031) 867-5114